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43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충북사회복지신문' 위상 재정립 논하다

■ 제93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11일 다락441서 충북사회복지신문 20주년 기념
신문 영향력 확대 위한 다각적 홍보 · 역할 토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11일 다락441에서 '제93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진행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충북사회복지'신문 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11일 다락441에서'충북사회복지신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3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1999년 3월 '충북사회복지'신문이라는 명칭으로 창간호를 발간한 협의회는 충북 도내 및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정보와 이슈 등을 다뤄왔으며, 지난 20년간 충북사회복지신문 발자취를 회고하며 연도별 사회복지 이슈, 지면 구성, 제작 과정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충북사회복지신문 창간호 발행인인 표갑수 고문(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9대~12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토론회 좌장으로 박상준 위원장(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회), 토론자로 고성민 부장(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동석 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경옥 소장(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최인석 편집장(복지데일리)이 참여하여 충북사회복지신문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나동석 교수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강화와 연계협력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는 방향을 잘 모색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고성민 부장은 "최근 종이신문이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신문이 좀 더 발전하여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창구로서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경옥 소장은 "주민센터나 단체이용시설 등 공공기관 위주로 사회복지신문을 추가 비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혜택 정보를 신문을 통해 전해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최인석 편집장은 "신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20년간 충북사회복지신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신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 발전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의 관심과 협력이 강화된다면 길잡이 역할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 상반기 보건복지분야 공모사업 11건 선정

체계적 전략 · 정보공유로 적극 대응 국비 46억원 확보

충북도는 올 상반기 보건복지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11건이 선정돼 4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반기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에 진천군이 선정되어 9억1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직업체험과정 등 교육 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공모에 도교육청이 선정되어 국비 26억6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3억5천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선정(4천만원), 학대피해 장애인쉼터(3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1억5천만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2억6천만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억2천만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7천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 사업(5천만원),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 사업(1천만원) 등이 있다. 충북의 보건복지분야 국비확보 성과는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한 정보공유, 대응체계 정립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신강섭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의 소외없는 평생복지를 위해 보건복지 관련 공모사업에 시군 ·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 조기 정착 위한 지원 '총력'

31년 만에 폐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충북도가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신체적 ·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종전까지 장애인 서비스의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근거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장애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일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 서비스는 대면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금년에는 일상생활 지원 분야(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되어 기존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자동 전환되므로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들이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31년간 유지된 제도 변경에 따른 초기 주민들의 혼란 및 서비스 상담, 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일부터 도와 시군에 장애등급제 폐지 전담 대응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16일 문을 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진행한다.

"충북 이주여성 인권 지켜드립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 사이버 폭력 등 상담 · 해결

충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돕는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서운동)에 문을 열었다.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16일 개소식을 갖고 충북과 인근 지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한국사회 적응지원과 인권보호에 대한 종합적 · 전문적 지원을 하게 된다.

상담소에는 소장과 한국 상담원 2명과 베트남, 중국 이주여성 상담원 2명 등 총 5명이 상주해 통 · 번역 상담을 지원해 이주여성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고 다국어 대응을 위해 통 · 번역 지원단을 구성 · 운영한다.

또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지원 및 법률 · 의료 · 노무 · 출국지원 등 서비스 지원과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와 지역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1366충북센터, 도내 16개소의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청주이주여성쉼터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인권보호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전국 최초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기관에 충북을 비롯해 대구, 인천, 전남이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성(性) 학대, 성매매 및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선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 확대 시행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 사라지고 횟수는 17회로 늘어나

충청북도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를 늘려 난임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총 10회(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된 대상과 횟수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5일부터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기존 11종에서 8종이 늘어난 1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 · 수술료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웰치과
CHEONGJU WELL DENTAL CLINIC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험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복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4000㎡ 3층 규모·49억원 투입
도서관·안전체험실 등 설치
모든시설 BF 인증… '안전 설계'

충주시가 직장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일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식을 갖고 보육서비스 일 환상에 나섰다.

시는 총사업비 49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000㎡, 연면적 1624㎡의 3층 규모로 대강당, 장난감 · 그림책 도서관, 안전체험실, 보육실 등의 시설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했다.

센터에는 어린이들의 음악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음계 활동을 할 수있도록 '음악체험 놀이터와 1파이는 계산을 성치했으며, 교통 · 지진 · 화재 등의 재난에 안전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안전체험실도 갖췄게 갖다.

또한, 모든시설이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인증을 받아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보육교직원 · 부모상담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실'은 보호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급한 볼일 등으로 잠한 외출할 때 단시간 아이를 맡기고 보육교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생후 6~35개월 영아들이 대상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90시간 이내로 시간당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경

2일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식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1661~9361)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845~7500)로 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충주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부모, 교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스마트안심터치' 추진

제천시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및 여성1인 정포의 안전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안심터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장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상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스마트 안심터치란 위급상황 발생 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다.

비상버튼이 작동되면 비상메시지는 물론 위치정보와 연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며 043~112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면 경찰팀이 즉시 출동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관내 거주 여성 1인 가구주 및 여성 1인 단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방범하는 차원 뿐 최요소를 사전차단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시는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안심터치 및 여성안심 안전장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043~641~5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아이돌봄 비용 무료 지원

맞벌이가정에 최대 15만원… 시 "보육 사각지대 보완할 것"

제천시는 여러방학을 맞아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무료지원한다.

제천시와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방학기간중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 이용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방학 중 아동이 양육공백 시간에 아이돌봄이 서툰 선생님이 1:1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워킹맘과 맞벌이 가정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5일부터 방학기간 제천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약 100가정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방학 확인서' 또는 '탄력 운영확인서'를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한 후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1월 중으로 기간당 최대 15만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착으로 지원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645~6965)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청주시 1인당 복지예산 99만7천원… 작년 보다 15% ↑

1인당 '30만7천원'… 주거복지센터 개설 등 맞춤형 복지 추력

음해 청주시의 1인당 복지예산이 90만 7천원에 달해 인구 60만 이상 7개 도 · 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음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하는 모두 83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또 미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15개소였던 보건 · 복지전담팀을 36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43개 읍 · 면 · 동 전체로 넓힐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맞춤지원센터 구축, 충청권 최초 3급 이상 신장장애인 부부비 지원과 도내 최초로 청각장애인 가정 내 시각경보기 설치 시업, 양성평등 시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도우미 소비 법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제 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단양군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운영센터시를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변의증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읍 · 면사무소 등 4개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외출 할 때 배터리가 방전돼 꼼짝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했다.

충전기는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어상천면사무소, 온달문화복지센터, 적성문화복지회관 등 8개소에 설치됐다.

충전 소요시간은 일반 충전기 소요시간(8시간)보다 4배 빠른 2시간이고 1회 충전으로 33km정도 이동할 수 있다.

충전기 안 대로 전동구 2대가 동시에 이용 가능하고 자전거나 수동휠체어 등의 타이어 공기주입 및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갖고 있어 장애인뿐 아니라 비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보장구 청소 등 장애보조기구 관리도 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설치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충전기 관리자 지정, 분기별 정기점검 등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장소 홍보에 적극 나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나서

지역 15개 복지관과 민 · 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열어

청주시는 6월 28일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 관내 15개 복지관(청주종합사회복지관, 청주사회복지관,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5개 노인복지관(청주기정노인복지관,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청주사랑노인복지관, 청주성모노인복지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그리고 2개 장애인복지관(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청주시는 청주행복네트워크 및 15개 복지관과 민 · 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시범보장포함에서 주최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 활사업' 공모에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0백만 원을 지원받아 음해 말까지 민 · 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시범 참여기관들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 그리고 공역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단위 복지를 실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 · 관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생활을 위해 시범단위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용동마을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진천군은 16일 용동마을을 노인정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진천군은 16일 초평면 신성리 용동마을을 노인정에서 치매 걱정 없는 안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에는 진천군보건소 장, 초평면장을 비롯해 초평농협, 파출소,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정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 치매인지 교육 및 치매조기검진 등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설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초평 용동마을은 인구가 적고 치매안심센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취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인정돼 2019년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초평 용동마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6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다신선 진천센터, 대파레미향 밥만을위한,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기술센터, CJ수원문화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롯데칠성음료 충북지점, 나눔속은문동본부, 풍천원드, 한우정육, (주)파리크라상,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희망리본, CJ대한통운영동2, 송파푸드, 청주주원, 에버리치, CJ서산 택배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충청제과(주), 롯데아울렛 대전센터, 롯데푸드, 롯데칠성 대전센터,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주), (주)맥도날드 송파푸드, 대상 덕평센터, 사마 청주공장, 엠놀뷰티, 무지개농장, (주)고향이, (주)파이어피트,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푸르밀레이스, 참맛식품, 리온엘에스, 주식회사 지다고마이

■ 청주충북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음료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미원보명, 삼학주식회, 풀온마실, (주)케이씨피푸드, 청원유통지원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풀무원, 청주주원

■ 청주시범사회복지관
청주시범노인복지관, 한기정복지재단, (주)한박식품, 두레유통협동

■ 청주새생푸드뱅크
(주)한국야쿠르트, 하이레코퍼레이션충청점, 두레유통협동조합, 푸레유통산업단지점, 기분좋은곳, 그린하우스재개점, 롯데칠성음료 충북지점, 지강지 민속박집, 참맥궁합, 광주기독교세종 천원두마트,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마스, 두레유통 금천점지점, 희리케이제, 분평점, 한솔 제일농장, 굿진학점, 금강원인 마트, 세산수산, 두레유통 금천농사점, 리베오베이커리, 행복유치원, 유신병원, 파리바게뜨 청주성점, 박미원, 두레유통 청주중점점, 파리바게뜨 청주중앙약점점, 명노유전연인 최대표, 홈프러스 박스프레스, 청주왕원점, 천연명농조합법인, 청수기획(주생사), (주)월드미식일에이시큐, 지연에인정합동조합법인, 천원, 김기덕 생조기업목표,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점, 세광우유지소, 시마스유통, 두레유통 분평점, 목원청과, 금관합법인목표, 월평점, 청주목련지구, 우유에우유

■ 청주기정푸드뱅크
(주)주리농, 신대동무도,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충원군푸드뱅크
가람기계, GS수퍼 충원점, 케이파우스, 금호슈불리비, 서산식품, 홈온마실 월평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무기, 단비상사, 단진도시속 충원점, 월리천 충원점, 그린유통, GS25 충원대로점

■ 괴산군구호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장곡, 신선나조, 신선촌, 문산식품, 제중건강약국 월무점, 서산수, 장우목, 장우목 떼떼모에이커, 두레유통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해브로통상, 미미시품, 한상림축산식품, 주생사이커피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유통 옥천점장, 구거제 농어보감, 조아루 감자탕, 독도기도, 청로목, 미가정장사, 이가원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유통(김용옥), (주)영일육가공

■ 보은군구호푸드뱅크 (T. 543-4055)

사업우유(보은점), (주)사업유통, CJ나눔재단, 롯데칠성음료, 충주 대전, 오뚜,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덕평센터), 대전청일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나눔등표, 삼양동장, 영원무역(양지), 김아백무대메꾸, 단진도시조(금원), (주)이가지면면, (주)충드림, 참맛식품, (주)맘은세이로, (주)생우원, (주)맘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유통성성모영원점), 면사람, 제레부로, 포리, 목우촌, 풍원이천백점), 삼육우유, 파리바게뜨 진천점원점, 태남 에디스스, 세시스템, 음지원, 참맛식, 리버기왕만두본점, 김수정, 일리천(이월점), 에스앤푸드, 지에시몰, 명기백집, CJ푸드빌, 해태유주시에스, 패스푸파, 보한 택집, 아식식품, 명기택집, 생기식품, 일 식품

■ 충주기초푸드뱅크
CJ안심식품, 대화유통, 일리천충주고판점, 떡보의하루, 두레유통 충주점, 풍미제과주충주영업소, 삼양정과유통, 삼양상회, 서울우유지조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세시스템, 삼양식품, (주)대일농산, CS코리아, 지이크에피제지충주점, 파리크라상충주점, 롯데칠성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레레이크, 롯데제과 제천, 빅밀제부드, 삼유통, 씨엔푸드, 오무기 제천점, 오무기, 태성교사, 롯데칠성 제천점, 3B정보마트, 크레파크랜드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센식품, 진천화주드, 음성드, 음성즈푸몬드, 충주유나제,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충북지점, 제천씨엔푸드, CJ 진천, 단양GS수퍼, 단양두승스템,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빠리바게뜨 단양드림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음료, 주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덕평센터), 경주푸르크리스라인점제, 신선초, 하림, 맞은시품, 한 빈, 빈이마무드, 대상청정원

충북사회복지모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출판 · 충북뉴데일 **박 상 준** 편집교문 감수일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충미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옥천군 충북 첫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착공

청산 · 청성 지역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 마련

5일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서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종섭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굿네이버스 충청수혜본부장, SBS 성영준 국장, KLPGA 김경자 전무이사 등 관계자와 비롯해 청산초등학교 학생 및 청산면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공사개요 및 진행사항 보고로 시작해 지역아동센터 설계 공모, 군과 비롯한 관계 기관 · 단체의 측사와 청산초등학교 학생 대표의 당차로이 이뤄졌다. 이어 시삽 후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청산 · 청성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센터는 지상2층(326.63m) 규모로 건립되며, 교육실, 놀이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아동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센터 건립에는 지난해 희망TV SBS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4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포함한 6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5월말 부지 내 기존건물(구 청산보건지소)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광섭 옥천군 행정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추진했다"라며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착공식에서 옥선 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충북에서는 옥천군에 최초로 건립된다. 현재 옥천군에는 민간에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위탁을 통해 이용 1명을 운영 중에 있다.

영동에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5억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2750㎡
내년 상반기 착공… 2021년 말 완공

영동지역에 총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군은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영동군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생활밀착형 시설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표했다.

이 체육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750㎡ 규모로 영동을 매헌리 영동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 건립된다.

내년 1월 설계에 들어가 상반기에 본격 착공하게 되며, 2021년 말 완공예정이다.

1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사무실, 2층에는 체육관, 옥상에는 간이 론볼장과 쫏살장, 옥외설비 등이 마련된다.

군은 30억원의 체육기금과 35억원의 지방비로 구성된 65억원의 총사업비 중 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군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동군에는 장애인을 소외계층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사업 추진의지, 수행능력, 실현가능성 등을 인정받으며 최종 선정됐다.

영동군 다양한 인구정책 … 5만명 회복 나섰다

지원금 상향 ·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소통과 공감 기반 인구 늘리기 박차

영동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목축히 인구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인구증가 정책에 매진해 왔다.

군은 지역발전 핵심요소인 인구증가를 군정 최대 현안과제로 상고, 귀농 · 귀촌, 출산장려, 정일 등 분야별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전입세대 · 대학생 · 직업군인 지원금, 초 · 중 · 고교 입학축하금, 아기등록증 제작 등은 영동군의 대표적 인구증가 시책들이다.

먼저, 영동군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를 중심으로 인구증가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군 모자보건팀과 인구정책팀으로 세분리 정비하면 서, 체계적인 출산 · 모자보건업무 추진 기틀을 만들었다.

2017년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도내 최고 지원금으로 상향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속 추진했다.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들이 곳곳에서 효과를 내며, 2014년 251명, 2015년 245명, 2016년 230명으로 감감하던 출생아 수가 2017년부터 반등되기 시작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269명으로, 통계청 분석 결과 2017년 출생아 증가율은 31.1%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도 바슨한 수준 유지했다.

올해 6월부터는 신규시책으로 아기의 탄생을 전 군민이 축하하고, 아기의 출생을 기념할 수 있는 신분증 명패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했다.

지역 행사에는 홍보부스 설치 후,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캠페인을 전개했다.

관내 거주중이면서 주소 미이전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각종 시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며, 전입을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 출산장려육지원금 지원 조건 등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옥천군 미취학 ·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학교 밖 프로그램 제공… 학업지속 · 학력인정 가능

옥천군은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옥천군학교밖지원센터(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꿈 드림'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옥천군학교밖지원센터는 지난 5월 초 신청해 이달중 선정통보를 받고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모집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따라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해 학업지속과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조건은 만 24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미취학 미진학자이다.

입학은 원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옥천군학교밖지원센터 곰 드림은 미취학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크게 학습, 아하 그렇구나 (영어, 수학), 투드림(정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중이다.

이영환 청소년담당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존의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검정고시 이외에는 학력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 드림' 등으로 잘한 의 학업중단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해 졸업을 못하는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준공

충청권 최초…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추진
보은읍 이평리… 지하 1층 지상 9층 100세대 규모

보은군이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추진한 '공공실버주택 준공식'이 16일 보은읍 이평리 현장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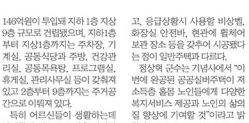
공공실버주택은 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보은군이 최초로 선보이는 공공주택이다.

보은군은 지난 2016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공실버주택사업이 선정돼 건설비 114억원 지원받고 이와 함께 5억2천 복지관 운영비로 12억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보은군은 확보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보은읍 이평리 현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17년 9월 착공, 올해 6월 22개월간의 공사 끝에 어번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기영 부군수와 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시전행사, 기념식, 준공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공공실버주택은 총 사업비 149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공동식당과 주방, 건강관리실, 공동목욕탕, 프로그램실, 휴게실, 관리사무실 등이 갖춰져 있고 2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응급상황시 사용할 비상벨, 화장실 안전바, 현관에 휠체어 보관 장소 등을 갖추어 시공됐다는 점이 일반주택과 다르다.

정상혁 군수는 기념사에서 "이번에 완공된 공공실버주택이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보은읍 이평리에서 열린 공공실버주택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괴산 제1호 '청안 다함께돌봄센터' 문 활짝

괴산군은 16일 청안복지회관(청안면 청안6내로9길 5~30) 1층에서 괴산군 제1호 '청안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박선미, 이하 돌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유남칙 충북도의원, 괴산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실무자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돌봄센터 개소식 후 다함께 시설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센터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을 원해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특히, 돌봄센터에서는 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활동, 음악 · 미술 · 체육 · 과학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부족급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선미 센터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한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다함께 아이들 키운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돌봄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군 '청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서 이차영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해주고 있다.

한국형 복지모델 세계로 '힘찬 날갯짓'

한-몽 사회복지 협력 MOU… 한국형 푸드뱅크 사업모형 전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민간자원 활성화 등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와 민간대표단은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장관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몽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정책가 2017년과 2018년에 개최한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연수의 2020년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1기당 정부는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노와루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상무 문군치멕(Sanjaa Mungunchimeg) 차관의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관련 정책에서 지역사회 통합 등(최신 유니세프(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자원 활성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몽골 고위, 실무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연수(Welfare Korea Academy) 프로그램이 몽골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공감하고,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가 확대된 만큼 몽골 공무원 맞춤형 ODA 초청연수 Welfare Korea Academy (몽골 프로그램을 2020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2020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국형 푸드뱅크 전수, 사회보장정보원과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사회서비스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를 위한 첫 방문길으로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사회보장정보센터 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첫 연말 집중모금 전개 후 세계적인 공동모금기관으로 성장한 경험과 노와루 몽골 공무원 장학생 출신 등 한국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몽 사회복지 협력 MOU 개정과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Welfare Korea Academy에 참여한 몽골 사회복지 분야 고위 및 중견관료 20명이 한국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16일 '한국형복지재단 개원식 기념식에서 축하 퍼 커피크를 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형복지재단 발원 출범 기념식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과 사업 참여기관 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수행하는 기관이었으며, 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 ·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되어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 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자활일자리 1만개를 추가해 저임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부담 10만원 적립, 3억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혜이게 복돈을 마련하게 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표결로 사용자안 체택… 2011년 이후 인상률 '가장 낮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0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멈춰 서긴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산입 속도 조정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덜 어든리 면 이어 속도 조정까지 겹 심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사고이력 주차장은 3개월 이내, 나머지는 내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년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이외 나머지도 2020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 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총 57개 시 · 군 · 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상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지방적으로 주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7개소(363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이번 가까운 2019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이외 나머지 발생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앞서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하연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디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 · 부정신고센터(☎ 1670-2082)가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부모로 등록한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와 필요한 조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알반적인 행정처분서는 밖하기 어려운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도 받는다.

신고센터는 평일 부정수급이 발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보상금(최대 5000만원)으로 지급한다.

김주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내부자이니 아닌 영업기 여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직접면지조사 기능을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과 조사원 격판성도 꼬게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립 도울 것"… 자활복지개발원 출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16일 '한국형복지재단 개원식 기념식에서 축하 퍼 커피크를 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형복지재단 발원 출범 기념식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과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수행하는 기관이었으며, 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 ·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되어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자활센터 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자활일자리 1만개를 추가해 저임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부담 10만원 적립, 3억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혜이게 복돈을 마련하게 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폐암 국가검진' 이달부터 시행

이번달부터 앞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만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된다. 앞으로 안한 사람 왼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 발견에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취지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 년마다 실시된다.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30갑년은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 바야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정도관 및 결과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면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갖춘으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수검자 1만8934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정책정책과장은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개편, 급여지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취득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가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안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프로미로서, 재가센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능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봉점	시설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존중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청주가경노인복지관 MOU
사회복지증진 위한 지속적 네트워크 관계형성 구축

17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전문봉사단 조직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17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전문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단인 전문봉사단 조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충북지역의 전문재능 봉사단 활동에 따른 협력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관계형성 구축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정은경 관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전문봉사단에게서 희망을 느끼고, 전문봉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 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네트워크 구축이 잘 이뤄지길 바라고, 지역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전문봉사단의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충북적십자사 생명나눔 원정대, 헌혈 중요성 알려

'제1회 로드캠페인' 발대식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생명나눔 원정대는 12일 청주 성안길에서 생명존중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12일 충북적십자사 강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헌혈과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제1회 SL(Saving Lives) 생명나눔 원정대 로드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경배 지사회장을 비롯한 대학RCY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배 지사회장은 "생명을 구하는 헌혈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젊은 인도주의 실천가로서 긍지를 갖고 오늘 캠페인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대식 후 원정대원들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다시 한 번 임무를 숙지하고 5명 1조로 나뉘어 시내 마트, 영화관, 관공서 등을 돌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과 CPR의 중요성을 알리는 로드캠페인을 실시했다. 원정대원들은 로드캠페인 마지막 장소인 성안길 헌혈의집 앞에 집결해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플래시몹을 실시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에 문화체험 제공합니다"

충북도, 초·중·고 장애청소년에 하반기 문화체험비 지원
매년 지원대상 파악해 예산에 반영…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충청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문화체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 장애청소년 193명으로, 도서구입비와 문화체험비로 초등생 10만8000원(연기준), 중고생 13만5000원(연기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당시설로 지급되며, 시설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체험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구열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원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 지원금은 그림·동화책, 집중력놀이책 등 도서구입과 피자, 수제청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다.

또, 제천 의림지, 보은 속리산 세조길, 충주 라이트월드 등 관내 유명 관광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충북도 약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30만원 상당 필수 의약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

충북약사회는 청소년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약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충청북도 약사회(회장 신태수)에서는 10일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 의약품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하였다.

2006년부터 1388청소년지원단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충청북도 약사회(회장 신태수)는 (도)여약사회(회장 임명숙)를 통해 작년 충북 도내 위기(가능)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영양제와 위기 상황일 때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에 구급상비의약품도 지원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약사회 신태수 회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게나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동환)도 충청북도 약사회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역 노인에 '초복 맞이 특식' 제공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한건복지재단 후원 받아 진행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초복을 맞이해 어르신 500여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관장 이창열)은 초복을 맞이해 12일 지역 어르신 500분을 초청해 '초복맞이 특식 복날이닭' 행사를 가졌다.

이번 보양식 나눔은 한건복지재단(대표이사 조창희)의 후원을 받아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날맞이 행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내덕노인복지관 이창열 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 폭염이 기승인데 어르신들께서 특식을 드시고 더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특식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식사를마친 어르신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복지관에서 보양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고 뜨끈한 삼계탕 한그릇을 비우고 나니 이열치열이라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날수 있을 것 같다."며 복지관과 한건복지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동고-초록우산, 나눔실천학교 발대식 진행

영동고, 교내 캠페인 통해
30명 후원자 모집 예정

영동고등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초록우산 나눔실천학교 발대식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손수건과 턱받이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영동고 학생회와 함께 무연고 아동 지원을 위한 초록우산 나눔실천학교 발대식을 가졌다.

나눔실천학교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생회 활동을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눔천사를 발굴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말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영동고 학생회는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거리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동들에게 필요한 손수건과 턱받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동고 학생회는 앞으로 2주 동안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거리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캠페인을 통해 30명의 후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영동고 오유찬 학생회장은 "교내에서 아이들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복지시설 종사자분들 힐링하러 오세요"

충청북도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힐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으로 지치고, 소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8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제주 힐링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위한 맛집 여행, 부부종사자를 위한 문화공연 관람, 유명가수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0여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7월부터 시설을 통해 협의회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모금회 '배분의제별 사례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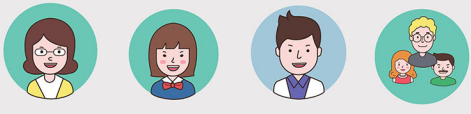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 이하 충북모금회)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9년 기획사업 "배분의제별 사례발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분의제별 사례발굴 지원사업은 배분의제별(빈곤, 질병, 소외)로 충북도내 중위소득 100%이하의 대상자(또는 가족)를 대상으로 지원사례를 홍보 및 모금을 진행하여 최소 1백만원을 지원한다.

사례로 선정이 되면, 사례 1건당 2주간 보도를 통해 홍보 및 모금을 진행하여 성금모금이 1백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에서 1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충북도내 14개 시군구청 및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기관,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추천서외 제출서류 확인하여 전자우편(cbchest@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 보건분야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장애인 등록제 개편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을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 되며,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126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된다.

● 임신부가정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한, 임신부 무료접종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신모수형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몰래카메라 성차별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몰래카메라 유병자여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하고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개정사항 :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숙박, 목욕, 이 · 미용, 세탁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만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바우처가 제공 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돌봄이 지원되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보증금 · 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세탁기 ·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하여 입주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6월부터 주거 입주, 7월부터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욕구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동지원(2020년 특별교통수단), 소득 · 고용지원(2022년 장애인연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 자살위험자 구조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이유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분야

● 올해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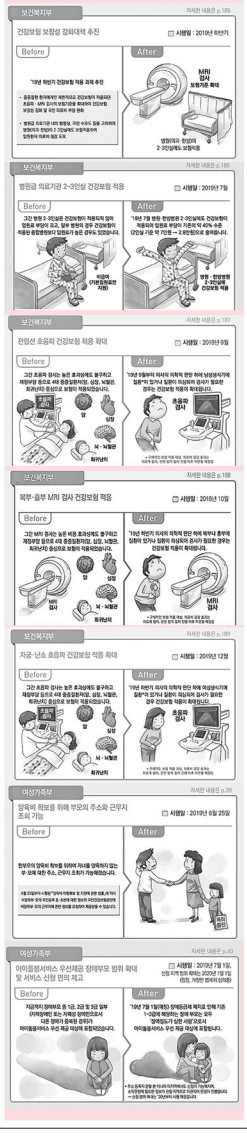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성 · 육아 · 보육분야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 임신지원 · 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 · 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 · 정서상담과 정보제공을 진행하고, 심층상담필요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또는 임소 ·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기존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지체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변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 최지 관할 본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 되고 있으며,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청년 참여 플랫폼은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 정책 이슈(예시) : 조직문화 혁신, 안전하고 폐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가족 포용, 지역 청년 활동 지원, 안전한 피임 · 임신 · 출산 등

●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8여년 추가 시군 설치 · 운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상호교류의 공간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시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되며,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에 보전은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에 보전분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 · 요루, 발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이탈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 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되며, 부처 및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 특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할 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 소득활동 중인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출산급여 지원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 단기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탈부터는 소득활동등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출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광장

우리 곁에 있는 위험 – 보이스피싱

이 중 구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장

개인적으로 오창에 있는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로 발령이 난지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지역의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며 보낸 감회가 남다르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자체(충청북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역센터로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 범위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으로서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센터로 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센터에서 정보보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을 떠올리곤 하는데 실상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 실제로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 등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충북모 대학의 교수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치밀함과 대담성, 그리고 정보력을 보면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주로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피해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거의 고르게 분포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30대 청년들이다. 20~30대 청년들의 피해가 60대 이상 고령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경제실정에 어두운 고령자가 주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를 본다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은 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다. 본인의 전화번호, 금융정보, 직업, 가족관계 등등의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사실로 믿게 되는데 최근에 개인정보의 입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그 루트와 방법을 바꾸게 된다. 직접 피해자 본인에게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공공연히 있는 일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그 타깃으로 정했다. 실제 그럴듯한 일을 재택근무 형태로 시키면서 일이 끝나면 급여를 준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조금의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다 알려주게 된다. 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하는 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는 했으나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달받은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충분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공인인증서는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용되었다. 피해액은 개인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돈을 모두 제3국(중국 등)으로 송금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갚아야 하는 대출금 채무만이 남았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고 그 피해자들과 대부업체 사이의 소송은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 3월 대법원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한 대가로서 급여는커녕 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ICT기술을 통해 우리를 편리한 생활로 인도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우리 곁에서 언제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

혼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손 정 훈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이용자분들을 만나고 매년 새로운 분들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요새 가장 고민하고 있었고,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한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뉴스나 신문기사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케어, 자립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자립'의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이라는 뜻이 나온다. 나 역시 군대를 다녀온 후 자취를 시작하였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나름 길었던 인생에서 자립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자립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던 2가지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를 배우며 봉사를 하였을 때 경험이다. 학생 때 우연한 기회로 주말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 함께 가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어린 생각에 '장애인을 만나면 내가 몸이 멀쩡하니까 많이 도와드려야지' 라는 착각을 하였다.

휠체어를 밀고 옷을 갈아입고 때를 밀어드리고 집에 가는 것까지 도와드리며 뿌듯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마무리 했었다.

하지만 다시 봉사를 갔을 때 전달받은 이야기는 다소 놀라운 말이었는데 그 때 그 학생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굉장히 놀랐고, 다소 충격을 받기도 했었다.

평소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던 것들까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만약 내가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이 좋은 하루고 행복한 하루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성과 그 분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던 경험이었고,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본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가 있는 이용자와 독립을 위해 방을 알아보며 겪었던 경험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지만 복지관 인근으로 혼자 살고 싶다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사는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혼자 독립하기 위해 집을 구해야 했고, 침대나 가구를 구입해야 했다. 물론, 취향대로 사고 싶은 것이 있었고, 작은 방이어도 꾸미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진정한 자립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지 고민해본 두 번째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

집 안에 가구가 필요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한다.

다만 그것들을 조금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자를 쉽게 설명하고, 그림이나 영상으로 설명하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다면 많은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지켜보았고, 함께 거쳤으며 지금도 항상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내가 지켜봐온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의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온 이용자들이 "자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어서 하는 말 보다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라는 말처럼 들려온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어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옆집 형이자 앞집 누나이자 아이들 학교의 다른 학부모인 그들이다.

동네에서 더 자주 보게 되고,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고 싶은 나 역시 같은 마을주민이다.

복지포럼

충북사회복지신문 발간 20주년 기념 포럼에 부쳐

김 영 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북사회복지'신문이라는 명칭으로 창간호를 발간을 한 지(1999.3) 올 해로 20년이 되었다(2019.4. 240호).

혹자는 20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이야기 하지만,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입장에서 한번쯤 20년 역사의 흔적을 추적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충북사회복지신문 20년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북사회복지신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방안"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 것이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가장 마음 아픈 확인 사항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충북사회복지신문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충북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묵묵히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충북사회복지신문 존재의 의미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충북사회복지신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홍보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소식을 알리는데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자신들이 한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고 억울해 하는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색함이 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

첫째, 매월 신문 2천여 부를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에 발송하는데도 왜 신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둘째, 우리 기관, 시설, 단체의 소식이 충북사회복지신문에 기사화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정성스레 스크랩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함께 모여 이야기 해 보자는 의견에, 냉소적이면서도 뒤에서는 수많은 불만을 토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 많은 부분 걱정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난 사회복지에 대한 희망을 읽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겉으로 틔지는 않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 결과를 정리해서 충북사회복지신문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한다.

그 지역의 사회복지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신문의 중요한 기능일 것 같다는 의견에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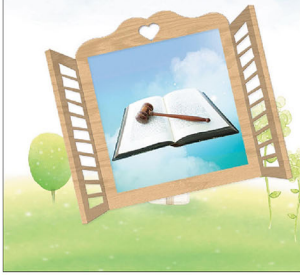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서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기능도 중요할 듯 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시도해 보고 싶다.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서운함…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는 요즈음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사회복지신문이 20년 동안 꾸준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관심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형사사건 피해자의 배상명령제도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후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었고 곧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지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민사절차와 별도로 따로 두고 있어,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시에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 정본으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제출, 진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공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공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 및 약식명령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범죄 피해가 아닌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피해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신한금융그룹]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신한금융그룹
■ 사업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상시신청)
■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 신청방법 :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 www.shinhanhope.com

[KT&G복지재단]2019년 상상펀드의료비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아동 · 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안내 탭 페이지 하단의 [의료비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 http://www.welfare.net

[KT&G복지재단]2019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아동 · 청소년사업 수행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참고:http://www.ktngwelfare.org/business/happy

[KT&G복지재단]2019년 캥거루의료비지원(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온라인모금액을 수어 · 점자 · 틀린그림찾기게임 점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참고: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 ·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11월(상시접수)
■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내 저소득 가정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병원,학교 등)
■ 신청서류 :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한국의료지원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 · 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 · 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 http://support.komaf12.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16-3060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95-2505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16-1365

▶ **컴퓨터교육 봉사**
관리센터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75-7411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83-2470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57-5960

▶ **녹음도서 모니터링 봉사**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37-5544

▶ **업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250-122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별별지기 봉사단, 음식지원 봉사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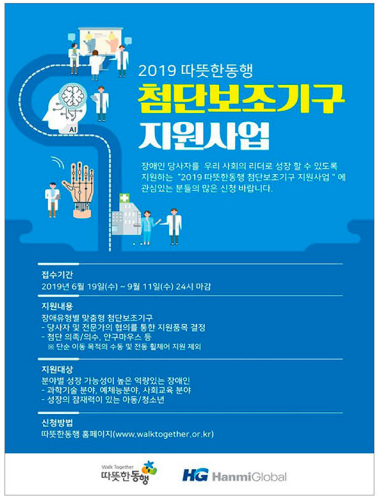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별별지기 봉사단(단장 김복순)은 9일 청주시에 위치한 성화동 공동부업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식지원 봉사활동을 하였다.

별별지기 봉사단은 2019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김복순 단장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sw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19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를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9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9년 6월 19일(수) ~ 9월 11일(수) 24시 마감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 당사자 및 전문가의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첨단 의족/의수, 안구마우스 등
※ 단순 이동 목적의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지원 제외
지원대상
분야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있는 장애인
- 과학기술 분야, 예체능분야, 사회교육 분야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신청방법
따뜻한동행 홈페이지(www.walktogether.or.kr)
Walk Together 따뜻한동행
HG HanmiGlobal

복/지/만/평

오래된 미래

이창신 www.bokmani.com